



金井議政

제2016-10호

2016년 10월 4일(화)

의회사무국 ☎ 519-5501~5
http://council.geumjeong.go.kr/

열린의정 소통의정

금정구 의회 제245회 임시회

- 기 간 : 2016. 9. 2(금) ~ 9. 8(목) ▷ 7일간
- 장 소 : 의회 3층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의원 전원
- 의안 의결결과

연번	의안명	제출일자	의결일자	의결내용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오희주의원 대표 발의)	16.7.1.	16.9.8.	원안 가결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조례안 (박정운의원 대표 발의)	16.8.17.	16.9.8.	원안 가결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8.22.	16.9.8.	원안 가결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8.22.	16.9.8.	원안 가결
5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영의원 대표 발의)	16.8.17.	16.9.8.	원안 가결
6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8.22.	16.9.8.	수정 가결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재조사 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8.22.	16.9.8.	원안 가결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8.22.	16.9.8.	원안 가결



의정 일지

일시	내용	비고
9/1(목) 15:00	·금정구 평생학습관 개관식	의원
9/2(금) 11:00	·제24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원
9/5(월) 10:00	·제245회 의회 임시회 업무계획 보고	의원
9/5(월) 16:00	·동래교육지원청 신임교육장 면담	의장
9/6(화) 10:00	·대한노인회 금정구지회 노인교실 개소식	의장
9/6(화) 10:00	·각 상임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	의원
9/7(수) 10:00	·제245회 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의원
9/8(목) 10:30	·부산시 의장단협의회 회의	의장
9/8(목) 11:00	·제245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9/8(목) 14:00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현장 방문	의원
9/19(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9/23(금) 17:30	·중국 북경시 창평구 방문단 환영 행사	의원
9/23(금) 18:30	·뮤지컬 팝스 콘서트 공연 관람	의원
9/23(금) 18:30	·서금발전협의회 회장단 이취임식	의원
9/24(토) 10:00	·스마일 나눔 걷기대회	의원
9/24(토) 13:00	·중국 북경시 창평구 방문단 오찬 간담회	의원
9/27(화) 10:00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의원
9/27(화) 10:00	·기획총무위원회 의정 연수	의원
9/28(수) 11:00	·주민도시위원회 정책토론회	의원
9/30(금) 14:00	·제5회 금정구 평생학습 박람회 테이프 컷팅식	의원
9/30(금) 18:00	·산청한방약초축제 개막식	의원

주요 의정 활동

■ 추석맞이 관내 복지시설 등 성품 전달

▷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9월 8일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과

금정경찰서 전·의경대를 방문하여 성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관내 방문복지시설은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바오로 아람터 등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총 삼백만원 상당의 쌀, 국수,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 중국 북경시 창평구 대표단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지난 9월 23일 우리구와 국제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북경시 창평구 대표단이 우리구를 방문함에 따라 환영식을 겸한 상호 간담회를 가졌다.

24일은 창평구 상무 부구청 손위를 비롯한 10명의 대표단과 우리구 홍완표 의장을 비롯한 전체 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양 구간 우호교류 및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단은 정부대표단 뿐만 아니라 소림무술 공연단 23명과 함께 온천천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청년 문화박람회에 공연차 방문한 것으로 뜻깊다 하겠다.



■ 의원 발의 조례 사항

①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발의자 : 박정운의원외 5명

(남산동, 구서2동-새누리당)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한글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한글로 사용하여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 제2조제2항 및 제3항 내용 중 한자 “議”에서 한글 “의회”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별표 1, 2, 3의 의회기나 의회배지 모형을 한글로 통일하고 제4조 제1항 내용 중 외래어인 “후렌지”를 한글인 “둘레에 금실”로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리하였다.

②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정미영의원외 6명

(부곡23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조례가 건축법에 의거하여 지어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지원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다시 지원 불가하여 신청대상 범위를 넓혀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주택법 근거 조항 수정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청 자격을 넓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신청의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다

③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발의자 : 오희주의의원외 5명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하여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및 체결에 관한 사항,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5분 자유발언

◆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6. 9. 2.)



박종성 의원(장전123동, 구서동, 금성동-더불어민주당)

제목 :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

사랑하는 금정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금정구의 가장 큰 현안이자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정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18일부터 8월13일까지 금정구는 12회에 걸쳐 총 71명을 상대로 창조 도시재생대학을 개최 하였습니다. 폭염 속에서 매주 주말에 열리는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77%가 8회 차 이상의 정규수업을 마쳐 수료를 하였고, 10회 차 이상을 교육받은 분들도 62%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도시재생추진단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의 향후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창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향후 금정구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의 주민의견 수립 및 마을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자발적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추진단의 계획에 맞추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 조직의 필요성을 촉구합니다. 부산시에도 비슷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지역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부산시에서 파견된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이 대단히 미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파견되다보니, 사업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갈등구조와 특수한 상황에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건비가 회의수당 중심으로 지급되다보니 한 코디네이터가 여러 마을을 책임지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이와 같은 형태의 지원은 별의미가 없음을 지적하고, 우리 금정구에서 육성한 마을일꾼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현장으로 파견하는 것이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일체감, 기획의 현실성, 유사시 대응방안까지 훨씬 대처성이 뛰어나다는 부분을 여러 번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금정구 창조 도시대학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수료생들도 같은 방식으로 흡수하여, 마을일꾼 육성 심화교육과 금정구의 기초적인 도시재생사업 용역들을 맡김으로써 이론과 현장감이 함께 겸비된 명실상부한 금정구의 마을 일꾼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탄생되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시스템이나 사단법인 형태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상근자의 인건비 지원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운영비와 실비는 예산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부분이나 도시재생부분은 기존의 순환보직의 시스템으로는 장기적으로 일관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분야는 오랜 시간 일관되게 시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업무를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방문했던 강릉시는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을 거의 10년 가까이 일관되게 해당 업무를 맡기면서 지역의 예술인들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쌓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강릉 예술인촌에 명장급 예술가들을 모셨던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금정구에서도 도시재생과 문화예술 분야만큼은 전문가 급의 공직자를 보유할 때도 되었다는 판단 하에 구청장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금정구의 향후 성장 동력을 기반에서부터 다진다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정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시지탄의 마음은 있지만, 기존의 개발 위주의 발전 전략에서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으로의 전략수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금정구 창조 도시재생대학에서 다루지 못한 지역의 현안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구 창조 도시재생대학에 참가하신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라면 저는 조만간 금정구 각 지역에서 살기 좋은 금정구를 만들기 위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흠어지지 않고 열심히 토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또한 이러한 과제를 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전문적 공직자를 발굴함으로써, 저는 금정구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과 동료의원들께서 저의 이러한 제안을 잘 검토하시어, 금정구 도시재생 사업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9. 8.)



정미영 의원(부곡23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더불어민주당)

제목 : 창조 도시재생대학에서의 배움과 바람

반갑습니다. 금정구의원 정미영입니다. 유난히도 맹위를 떨치며 온 국민이 전기 요금을 걱정하게 하던 더위도, 흐르는 시간에는 이겨낼 재간이 없었는지 초가을 선선한 바람에게 자리를 내주었나 싶습니다. 금정구민 여러분 지난 여름 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지난 5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12주간 매주 토요일에 창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도교수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4개 팀 80여 명이,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업과 사례지역 답사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제가 속한 “예술가네”는, 구서동과 부곡동에 거주하는 주민 22명과 동의대학교 건축학과와 도시공학과의

두 지도교수님으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예술가네”는 평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두 번의 현장 답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각 팀은 수료식 날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발표했는데, 저희 팀은 대박상을 수상할 정도로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오늘은 저희 팀이 고민한 현장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해, 팀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서동에 위치한 새마을 공원의 정비를 제안합니다. 도시철도 두실역에서 이마트 맞은편으로 이어지는 새마을 공원의 수목은, 사실상 방치된 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수벽은, 너무 높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말끔하고 안전한 동네 공원으로 거듭나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중앙대로와 구서동의 안뜰로20번길을 이어주는 굴다리의 환경개선을 건의합니다. 지상으로 막 빠져나온 도시철도 밑으로, 중앙대로의 보도보다도 낮은 곳에 위치한 굴다리는 어둡고 습해, 쓰레기 무단 투기와 승용차 불법 주차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을 위해, 핸드 레일을 설치하며 깨끗하고 밝은 공간으로 바꾸면 참 좋겠습니다.

셋째, 중앙대로 1893번길과 안뜰로20번길이 도보로 온천천으로 이어지길 제안합니다. 중앙대로 1893번길과 안뜰로20번길은 중앙대로의 횡단보도와 굴다리로 이어져 있는데, 안뜰로20번길 27의 동보 빌라에 이르러, 무슨 연유인지 공유지인 구거 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온천천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담장을 철거해 거기서 온천천으로 진입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넷째, 구서역 3번 출구 앞의 무료 급식소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주차장도 아니며 공원도 아니고, 게다가 위생시설도 없는 곳인데, 이곳은 여러 기능이 혼재해

있습니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과 큰 마트가 위치하고 있어 금정구 내에서 가장 통행이 번잡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지금처럼 급식이 이어지는 것을 용인하겠다면, 금정구는 최소한의 위생시설이라도 갖추어 이곳을 찾는 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울러 지역사회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기찰공원에 대해서입니다. 금정구에는 기찰공원과 기찰로는 있지만, 우리의 자랑거리로 살릴 수 있는 기찰이라는 지명의 역사성을 안내

하는 곳이 없습니다. 기찰공원은 가톨릭순교자박물관을 거쳐 회동수원지의 오륜대와 땅뽕산의 황톳길로 가는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동래에서 한양으로 가는 황산도 길목에 위치한 기찰의 역할과 황산도 이야기가 기찰공원 어딘가에 안내나 설명이 있다면, 주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금정구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서비스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